진짜 무서운 일은 대낮에 일어난다.

어둠 속에 숨지도 않고, 따듯한 햇빛을 받으며, 대놓고 당당하게 다가와선 공포를 선사한다.

< 바깥 배경 >

은혜 선배와 만나기로 한 날.

날씨는 구름 한 점 없게 화창했다.

“날씨는 좋네….”

은혜 선배는 나보고 집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선배는 대체 어떻게 내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걸까.

쨍쨍한 햇살에도 개의치 않고, 마음속 그림자가 커진다.

아, 아니지. 그래. 학생회장이니까 그런 거야.

저번에 학생회 가입할 때 적었던 서류에 주소를 적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 그러니까 은혜 선배가 내 주소를 알고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짝 안도하려 할 때, 길쭉한 그림자가 도로 한복판에 나타났다.

모든 햇빛을 흡수할 것 같은 새까만 리무진. 창문으로도 빛을 허용할 생각이 없는지 창문은 새까맣게 선팅돼있다.

그 리무진은 조용히 다가와 내 앞에서 멈춰 섰다.

천천히 리무진의 창문이 열리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당연히

“타.”

은혜 선배였다.

===

리무진을 탄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 길쭉한 내부는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집이라고 하는 게 더 걸맞았다.

자동차 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넓은 공간. 고급 소파를 방불케 하는 좌석.

리무진 안은 내 자취방하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았다.

잠깐 둘러봤을 때쯤, 리무진은 천천히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희 어디 가는 건가요?”

“나도 몰라.”

“…네?”

“아직 안 정했거든. 널 어디로 보낼지.”

<찰칵>

은혜 선배의 그 말과 동시에 리무진 문이 잠겼다.

“그러니 일단 앉아. 얘기부터 해야 하니까.”

선배의 반대편으로 가, 나보다 비싸 보이는 소파에 내 엉덩이를 얹었다.

앉고 나자, 맞은 편에 있는 은혜 선배가 온전히 눈에 들어왔다.

엄청 비싸 보이는 명품과 털코트. 손에 들린 최신형 사과 핸드폰. 그리고 미소 하나 없는 차가운 표정.

그런 은혜 선배의 모습은 주위에 있는 비싼 것들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 내가 아는 친근한 선배의 이미지하곤 전혀 달랐지만.

“왜? 교복이 아니라 놀랐어?”

“조금요.”

“그래? 그럼 익숙해져. 이게 내 평소 모습이니까.”

평소 모습. 나한테는 하나도 익숙하지 않은데, 은혜 선배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왜…”

“그건 보여주기용이야.”

“남들한테 그리 친절한 애가 어딨어. 거기에 핸드폰도 쓸 줄 몰라? 만화에나 나올법한 인간이지.”

은혜 선배는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믿더라고.”

“뭐 하러 굳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 나 미움 사기 쉬운 성격이거든. 거기에 돈도 많고.”

“그럼 피곤한 것들이 따라붙어. 좋은 거 쓰면 질투하는 애. 기 싸움하려고 안달이 난 애. 안 보이는 데서 입 터는 애.”

“그게 귀찮으니까 연기하는 거야. 착하고, 순진한 학생회장 고은혜.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누구한테 들켜버렸네.”

싸늘한 시선이 눈동자를 찌르고 들어왔다.

“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알아. 그리고 다행으로 생각해. 그 덕에 널 써먹기로 했으니까.”

“입이 무거운 건 부하로서의 좋은 덕목이거든.”

…부하?

갑자기 나온 이상한 단어에 당황하고 있을 때, 은혜 선배가 꼬았던 다리를 풀고 말했다.

“너. 나 좀 도와줘야겠어.”

“내가 맡은 축제 일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학생회장이 엄청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말이야.”

“제가 낸 소문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 만약 그랬으면 네가 여기 있지도 않았겠지.”

“….”

“아무튼.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교감이 말한 대로 적당히 사진 찍을 정도로 축제를 열면 뒷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

“학생회장이 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고작 이거냐, 뭐 이런 얘기.”

“난 그런 거 듣고 싶지 않거든. 정말로, 조금도, 듣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네가 날 도와야지.”

은혜 선배는 당연한 듯이 말했다.

“너 입은 무거운 것 같고, 내가 연기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 굳이 숨길 필요도 없고. 학생회에서 하는 일도 제일 없지. 써먹기 딱 좋잖아?”

“일은 이번 달까지만 도우면 돼. 방학식 이후엔 나도 졸업이니까, 그 뒤론 별일 없겠지.”

“만약에 도와주기 힘들면요?”

“그러면….”

“조금 먼 곳으로 가야겠네.”

갑자기 리무진이 불길한 엔진음을 올렸다.

“미안. 바다까지 가려면 속도를 올려야 하거든.”

“바, 바다요?”

“응. 바다 싫어? 그러면 산으로 할래? 산은 가까우니까 난 더 좋은데.”

“…농담이죠?”

“후후.”

은혜 선배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러고 보니 운전석에 있는 아저씨가 좀 심하게 근육질이긴 했다.

얼굴에 무서운 흉터도 있었고….

“난 농담 싫어해. 뒤에서 나 보고 떠드는 것만큼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래? 도울 거야? 아님 말 거야.”

은혜 선배는 협박하듯 나를 노려봤다. 거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나는 얌전히 선배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았다.

“도와드릴게요.”

“후후. 이대로 끌려가긴 무섭나 봐?”

“그것도 그렇지만…. 전 처음부터 선배 도와줄 생각이었어요.”

“은혜 선배도 제가 선물 준비하는 거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도와야죠.”

“어머, 정말? 그것참 감동적인 대답이네.”

“내가 널 리무진에 끌고 오지도 않고, 문도 안 잠그고, 험상궂은 사람을 데려오지 않고 부탁했더라도.”

“넌 날 도왔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

은혜 선배는 나를 믿지 않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기에, 나도 대답하진 않았다.

선배는 대답하지 않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곤, 눈을 살포시 감았다 뗐다.

“…후후. 재밌네.”

“같이 지내다 보면, 네가 말한 게 알량한 잔머리인지, 마음에서 나온 답인지는 알게 될 테니까.”

“일단은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엔 점수를 줄게.”

은혜 선배의 말이 들리는 건지, 리무진이 내던 엔진음은 다시 조용해졌다.

<핸드폰 진동 소리>

“방금 보낸 게 내 진짜 연락처야. 앞으로 축제에 관한 건 이 번호로 연락할 거니까, 등록해둬.”

무슨 이름으로 등록할지 고민하다가 ‘무서운 선배’로 저장했다.

“일은 내일부터 질리게 시킬 거니까, 오늘은 이거면 돼.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어?”

“물어봐도 돼요?”

“입 아프니까 하나만 물어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자기주장을 펼쳤다.

‘만약 제가 선배에 대해 남들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죠?’ ‘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예요?’ ‘저 운전사 아저씨는 뭔데요?’

그런 다양한 궁금증을 누르고, 나는 제일 듣고 싶었던 걸 선배에게 물었다.

“…은혜 선배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후후. 왜? 네 머리로는 내가 이해가 안 가?”

은혜 선배는 비웃는 것처럼 살짝 눈썹을 올렸다.

“근데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돈 많고, 성격 꼬인 여자라고.”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은혜 선배는 손을 저으며 주제를 돌려버렸다.

“됐어. 이걸로 질문은 끝이야.”

느릿하게 움직이던 리무진이 멈춰서고, 내가 들어왔었던 문이 열렸다.

“내려. 너랑 볼일 다 봤으니까.”

선배 말에 따라 밖으로 나가자, 리무진을 탔었던 집 앞 그곳에 그대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타고 있을 때, 분명히 움직였었는데. 마치 잠깐 꿈을 꾼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말하듯, 뒤에 있던 리무진 문이 다시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그 문틈 사이로 보인 은혜 선배는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상냥한 미소도 아니고, 짜증이 난 듯한 차가운 무표정도 아니다.

하지만 내겐 너무 익숙한 표정.

너무나 많이 봐왔던 표정.

“은혜 선배!”

그 표정을 보고 나도 모르게 외쳤지만, 문은 철컥 닫혔다.

리무진 안에 있을 은혜 선배는 더 보이지 않았다. 새까만 선팅에 비춘 내 얼굴만 반사됐다.

하지만 잠깐 있다가,

(기계음)

리무진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왜.”

반쯤 내려간 창문 너머로 차가운 은혜 선배의 얼굴이 보였다.

은혜 선배에게 할 말은 없었다. 아까 표정을 보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점점 짜증이 치미는 듯한 얼굴로 바뀌는 은혜 선배를 보고, 아무런 말을 꺼냈다.

“내일 봐요.”

“…하아.”

작은 한숨을 쉬곤, 은혜 선배가 미간을 찡그렸다.

“입 아프다니까, 인사까지 하고 있네.”

선배는 질린 듯한 얼굴로 나를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기계음)

리무진은 주인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처럼 창문을 다시 올렸다.

그렇게 창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리무진 안에서 작게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봐.”

은혜 선배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내겐 조금

기쁜 듯이 느껴졌다.